

‘꽃매미’ 방제약제 3품목 추가 등록

‘똑소리’ ‘아타라’ ‘빅카드’ 등, 8.10 농진청 직권으로

-홍보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외래해충으로 이른 바 중국매미라고도 알려진 ‘꽃매미’ 방제약제 3품목이 추가 등록되어 방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지난 8월 10일 최근 각종 과수, 특히 포도재배시 대발생하여 수액을 빨아 먹어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 외래해충인 ‘꽃매미’ 방제가 시급하다고 내다보고 ‘똑소리’ ‘아타라’ ‘빅 카드’ 등 3종의 전용약제를 추가로 긴급 직권등록 했다. 이로써 꽃매미 전문 약제는 모두 5품목으로 늘어 났다.

동방아그로 - 똑소리 수용성입제



이번에 등록된 (주)동방아그로(사장 염병만)의 ‘똑소리 수용성입제’는 매미 목충들에 효과가 확실한 약제로, 작물에 침투이행성이 우수해 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식물을 가해하는 식독해충에 효과적이다. 노린재목, 파리목, 딱정벌레목, 나비목, 총채벌레목, 메뚜기목의 각종 해충에 우수한 방제효과를 나타내며 포도를 비롯한 사과, 배, 단감, 감귤, 수박, 고추, 벼, 감자, 오이, 장미 등 여러 작물에 등록돼 있다. 꽃매미의 다발생 지역에서는 기 등록된 ‘스미치온유제’와 혼용하여 방제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신젠타 - 아타라 입상수화제



신젠타코리아(주)(사장 김용환)의 ‘아타라 입상수화제’는 각종 채소, 과수, 벼에 발생되는 다양한 흡즙해충인 진딧물, 가루이, 총채벌레, 배나무이, 깍지벌레, 멸구, 매미충, 노린재 방제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침투이행성이 뛰어나 약제처리 방법이 다양하고 편리하며 약효지속기간이 길어 우수농산물 생산에 유용하다. 특히 포도에 7일전까지도 사용이 가능해 수확기에 근접하여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다. 동일 유효성분이 포함된 ‘스토네트수용성입제’는 이에 앞서 등록되어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삼공 - 빅카드 액상수화제



미소해충 전문 약제인 한국삼공(주)(사장 한태원)의 ‘빅카드 액상수화제’는 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흡즙성 해충인 매미목 해충, 노린재목 해충, 총채벌레목 해충과 파리목 해충에 특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등록된 작물이 다양하여 가지, 감, 감귤, 감자, 거베라, 고추, 구기자, 들깨, 매실, 밤, 벼, 복숭아, 복분자, 배, 사과, 소나무, 수박, 포도, 인삼, 오이, 자두, 장미, 착색단고추, 참외, 참다래, 콩, 파, 토마토 등 28작물 50가지 해충에 등록 되어 있다.